

대학생을 위한 단계별 진로지도 프로그램(Three K 프로그램)의 개발

백지숙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대학졸업자의 취업여건은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놓여 졸업예정자의 취업가능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도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8%, 전문대학 졸업자는 85.2%로 나타났으며, 2008년 3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6%로 전체실업률(3.4%)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통계청, 2008). 따라서 진로지도 업무가 대학행정의 중핵업무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취업률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의 흐름에 자신 있고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대학만이 21세기에 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고학년이 될수록 가장 현실적인 고민거리로 떠올리는 문제가 취업문제, 직업선택의 문제이다(강순화, 1995; 강지윤, 김성지, 2003). 따라서 대학은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인식하고 이를 정립해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 시절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의 최종 준비 단계이자 실질적인 진로 결정의 단계이다. 인간의 발달 단계상 진로에 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 및 진로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탐색을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큰 관심과 고민을 보이는 것만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이는 대학교 이전까지의 진로지도가 주로 입시 위주인 경우가 많고, 대학을 진학할 때에도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동안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강순화, 1995; 강지윤, 김성지, 2003; 김기정, 이연희, 1999; 김남진, 2003; 김민순, 2004; 양희산, 2004; 오진미, 2003; 임은미·김현진, 2002; 장기명, 2001; Jurgens, 2002). 대부분 이들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진로문제나 고민을 갖고 있다고 보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왔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로결정을 위한 대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성숙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로지도에 보다 효율적이라 예상된다(Fuqua, Blum, & Hartman, 1988; Lucas, 1993; 김봉환,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해 대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평가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제까지 대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 진로지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진로 결정과 진로 미결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상태를 이해해왔다. 진로결정은 대학생이 자신의 직업선택 과정에서 현재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말하며, 진로 결정수준과 진로 미결정수준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진로 결정수준은 유형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진로결정자와 진로미결정자로 나누기도 하였지만(Leong & Chevinko, 1996; Scheier & Carver, 1985),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눈 연구들도 많이 있다(백지숙, 2006; 허자영, 1996; 이혜성과 홍혜경, 1998).

다양한 진로결정 유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진로 미결정 유형은 개인의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의 부족 때문에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는 유형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보이며,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한 미결정 유형이 미결정 정도가 보다 심한 것으로 여겨진다(Osipow, 1987). 따라서 진로미결정-자기탐색과 자기이해의 부족, 진로미결정-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의 세 유형으로 대학생을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이들 유형을 위한 차별적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효율적인 진로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진로 결정 수준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류를 통해 내담자 각각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진로지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널리 알려져 왔지만(김연수, 2003; 서영석, 2005; 이준기, 2004; 장현덕, 1993), 진로지도가 대학생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로문제가 대학생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거리이기에 진로지도가 대학생의 대학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차별적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하겠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한 대학의 2개 학부 내 6개 학과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학생이었다.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1학년은 좀더 진로에 대해 탐색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져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수집은 각 학과별로 이루어졌으며 되도록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1) 진로성숙도 검사 (Career Maturity Inventory: CMI)

본 척도는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를 김현옥(1989)이 우리말로 번안, 수정한 것이다. CMI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로선택 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는 태도척도만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태도척도는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양식은 본래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김남홍, 2001; 김봉환, 1997; 김현옥, 1989; 김형균, 2002; Leavings, 1982; Mowsesian & Holly, 1976)이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2) 진로결정프로파일 (Career Decision Profile: CDP)

진로결정프로파일은 Jones(1989)가 직업결정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 (Jones, 1977)를 수정한 것으로 자기명확성,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단호성, 직업선택 중요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하위요인을 측정하기 전에, 진로결정프로파일은 진로결정의 확고한 정도와 진로결정에 대한 편안함 정도를 4 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4문항과 자기명확성 10문항,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5문항, 단호성 4문항, 직업선택 중요성 4문항의 총 27문항이 번안되어 사용될 것이다.

(3) 대학적응척도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대학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aker와 Siryk(1984)이 제작한 SACQ를 백지숙·도현심·박성연(1998)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SACQ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

응, 정서적 적응, 학교소속감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7문항 중 우리나라 대학 문화와 맞지 않는 9문항이 삭제되어 5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생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각 그룹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먼저, 2개 학부 내 6개 학과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진로결정의 확고한 정도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 집단과 결정하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미결정 원인인 자기명확성과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부족을 토대로 다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자기명확성 부족으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집단,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집단, 진로결정을 한 집단의 총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은 무작위로 표집된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총 6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역시 세 집단에서 무작위로 20명씩 표집된 총 60명의 학생이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세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은 세 명의 진로상담 전문가가 각각 진행하였으며, 모두 6회기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는 매주 시행되었으며, 120분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집단인 자기명확성의 부족으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집단을 위해서는 Knowing Why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자아개념,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을 점검하여 직업결정에 도움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 두 번째 집단인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집단을 위해서는 Knowing What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탐색과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진로결정을 유도하였다. 세 번째 집단인 진로결정을 이미 한 집단을 위해서는 Knowing How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결정한 직업을 얻기 위한 실질적인 취업정보와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60명의 실험집단과 60명의 통제집단 학생들에게 사후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전검사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평가되었다.

Knowing Why Program

| 회기 | 주제 | 목표 | 활동 내용 |
|----|-------------------------|---|---|
| 1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2. 개략적인 프로그램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동기를 고양 시킨다 3. 참가자들 간, 참가자와 진행자 간의 친밀감을 형성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소개하기 2. 자기소개 하기 3. 느낀 점 나누기 4. 규칙 정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킬 규칙을 정한다. 5.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심리검사 하기 6. 마무리 |
| 2 | 자아개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눔으로써 자존감을 향상 시킨다. 2.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만의 특성, 경험, 자랑거리 등을 적어서 발표하고, 발표 한 사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상 이름을 집단원들은 생각하여 발표가 끝난 후 한 사람씩 상장을 수여한다. 2. 자기효능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3. 느낀 점 나누기 4. 마무리 |
| 3 | 나의 성격 이해하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BTI 성격 검사로 나의 성격을 이해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BTI 검사결과를 보고,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각자 돌아가며 일치한 점과 다른 점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2. 같은 유형끼리 모여 각 유형의 성격의 장, 단점을 토론한 후 발표한다. 3.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 4. 마무리 |
| 4 | 나의 직업가치관 이해하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행동이나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가치관을 확인해 본다. 2.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드러냄으로써 직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가치관 검사결과를 보고, 각자의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2.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3.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직업에 대하여 깊게 생각한 후 발표한다. 4. 느낀 점 나누기 5. 마무리 |
| 5 | 나의 흥미 찾아보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흥미에 관하여 탐색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흥미도 검사결과를 보고, 자신의 흥미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2. 자신이 흥미와 직업을 연결시켜서 발표한다. 3. 느낀 점 나누기 4. 마무리 |
| 6 | 프로그램의 종결 및 총정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자신의 다양한 면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난 회기들의 작업을 통하여 깨달은 자신의 모습을 글로 써본다. 2.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생각해 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3. 느낌 나누기 4. 마무리 |

Knowing What Program

| 회기 | 주제 | 목표 | 활동 내용 |
|----|---------------|--|---|
| 1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2. 개략적인 프로그램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동기를 고양 시킨다 3. 참가자들 간, 참가자와 진행자간 친밀감을 형성 한다 4. Holland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에 맞는 구체적 직업을 확인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소개하기 2. 자기소개 하기 3. Holland 적성탐색검사 실시 4. 느낀 점 나누기 5. 규칙 정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킬 규칙을 정한다. 6. 마무리 |
| 2 | 직업탐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에게 맞는 분야의 직업의 종류를 확인 한다 2. 정보 수집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의 종류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olland 적성탐색 결과를 참조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다섯 가지 정도의 직업을 골라본다. 2. 선택한 직업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학력기준, 작업환경, 고용기회, 수입,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3.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심 분야의 다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4.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5. 마무리 |
| 3 | Forum I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전공 교수님 한 분씩을 초청하여, 모두 6명의 교수님과 진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전공의 교수님께 각 분야의 유망한 직업과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2. 학생들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한다. 3. 느낀 점 나누기 4. 마무리 |
| 4 | Forum II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전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모두 6명의 전문가와 진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전공의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현장 소식과 실질적인 정보를 듣는다 2. 학생들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한다. 3. 느낀 점 나누기 4. 마무리 |
| 5 | 체험 프로그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탐색과 Forum 등을 통해 관심 있는 직업 세 개 정도를 고른다. 2. 각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3.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다시 골라 체험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직업을 정한다. |
| 6 | 의사결정 프로그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잠정적인 진로목표를 정한다. 2.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고한 목표 의식을 심어준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에게 맞는 직업 결정하기: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직업을 선택한다. 2. 그동안 만든 직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발표한다. 3. 미래의 내 모습 그려보기: 자신이 쓰게 될 명함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집단 활동을 통해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고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4. 느낌 나누기 5. 마무리 |

Knowing How Program

| 회기 | 주제 | 목표 | 활동내용 |
|----|---------------------------------|--|--|
| 1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진로 소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략적인 프로그램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동기를 고양 시킨다 2. 자신이 결정한 직업을 소개한다. 3. 참가자들 간, 참가자와 진행자 간 친밀감을 형성 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소개하기 2. 자신이 결정한 직업 소개하기 3. 느낀 점 나누기 4. 규칙 정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킬 규칙을 정한다. 5. 마무리 |
| 2 | 취업정보 수집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관한 취업정보를 수집한다: 취업에 필요한 전형 절차, 자격(ex. 성적, 토익점수), 필기과목에 대한 정보 수집, 준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업정보를 수집 한다 2. 취업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느낀 점 나누기 4. 마무리 |
| 3 | 취업계획 수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집한 취업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을 위해 자신이 부족한 점, 준비해야 할 점을 점검한다. 2.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목표 세운다 3. 느낀 점 나누기 4. 마무리 |
| 4 | 취업문제 해결하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하기까지 예상되는 어려움, 취업 후의 어려움에 대해 예상해보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직업을 갖기까지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본다. 2. 비슷한 직업끼리 소집단을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3. 느낀 점 나누기 4. 마무리 |
| 5 | 취업에 필요한 서류와 비즈니스 매너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바른 취업서류 작성법을 배운다. 2. 면접 시 좋은 이미지를 주는 태도에 대해 배운다. 3. 상황 별 면접 대응 요령을 배운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바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운다. 2. 배운 바를 토대로 스스로 작성한다. 3. 취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를 배운다. 4.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5. 느낀 점 나누기 6. 마무리 |
| 6 | 나의 직업 프리젠테이션 및 총정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이 선택한 직업, 취업을 위한 자신의 계획, 준비과정의 발표를 통해 자신감과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이 선택한 직업, 취업을 위한 자신의 계획, 준비과정을 발표한다. 2. 나머지 학생들은 피드백을 준다. 3. 느낌 나누기 4. 마무리 |

III. 연구결과

1. Three K 프로그램과 진로성숙도

대학생을 위한 단계별 진로지도 프로그램인 Three K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Knowing Why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는 집단간 점수차이가 사전보다 사후에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검사 점수에서는 실험집단(M=125.80, SD=9.50)과 통제집단(M=124.15, SD=8.46)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135.15, SD=12.75)과 통제집단(M=126.80, SD=8.2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6, p=.01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가 보여주듯, Knowing What 프로그램에서도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05, p=.004)가 있었다. 이는 두 프로그램이 참여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Knowing How 프로그램에서는 사전(t=.22, p=.824), 사후검사(t=1.44, p=.159)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4> Why 그룹의 진로성숙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 | | 사 전 검 사 | | | 사 후 검 사 | | |
|------|------------|--------------|-----|------|---------------|-------|------|
| | | M(SD) | t | p | M(SD) | t | p |
| 진로성숙 | 실험집단(n=20) | 125.80(9.50) | .58 | .565 | 135.15(12.75) | 2.46* | .019 |
| | 통제집단(n=20) | 124.15(8.46) | | | 126.80(8.27) | | |

<표5> What 그룹의 진로성숙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 | | 사 전 검 사 | | | 사 후 검 사 | | |
|------|------------|---------------|------|------|---------------|--------|------|
| | | M(SD) | t | p | M(SD) | t | p |
| 진로성숙 | 실험집단(n=20) | 132.65(14.36) | -.40 | .690 | 141.60(10.90) | 3.05** | .004 |
| | 통제집단(n=20) | 134.15(8.44) | | | 130.80(11.46) | | |

<표6> How 그룹의 진로성숙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 | | 사 전 검 사 | | | 사 후 검 사 | | |
|------|------------|--------------|-----|------|---------------|------|------|
| | | M(SD) | t | p | M(SD) | t | p |
| 진로성숙 | 실험집단(n=20) | 137.95(9.85) | .22 | .824 | 144.45(13.37) | 1.44 | .159 |
| | 통제집단(n=20) | 137.25(9.97) | | | 138.45(13.51) | | |

2. Three K 프로그램과 대학적응

Three K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학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Knowing Why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는 집단간 점수차이가 사전과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Knowing What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학업적응,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는 집단간 점수차이가 사전보다 사후에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검사 점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사회적응을 제외한 학업적응($t=3.67, p=.001$), 정서적응($t=3.17, p=.003$), 대학소속감($t=2.45, p=.019$)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Knowing How 프로그램은 Knowing Why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대학적응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1> Why 그룹의 대학적응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 | | 사 전 검 사 | | | 사 후 검 사 | | |
|-----|------------|-------------|------|------|-------------|------|------|
| | | M(SD) | t | p | M(SD) | t | p |
| 학업 | 실험집단(n=20) | 48.30(5.89) | .36 | .724 | 49.15(8.03) | 1.40 | .170 |
| 적응 | 통제집단(n=20) | 47.75(5.65) | | | 46.05(5.50) | | |
| 사회 | 실험집단(n=20) | 23.35(2.78) | -.05 | .962 | 25.10(3.89) | .71 | .482 |
| 적응 | 통제집단(n=20) | 23.40(3.68) | | | 24.25(3.67) | | |
| 정서 | 실험집단(n=20) | 29.90(5.10) | .89 | .378 | 30.60(5.81) | -.64 | .528 |
| 적응 | 통제집단(n=20) | 28.45(5.18) | | | 31.70(5.09) | | |
| 대학 | 실험집단(n=20) | 20.50(3.03) | .45 | .657 | 22.25(3.92) | .51 | .616 |
| 소속감 | 통제집단(n=20) | 20.10(2.59) | | | 21.65(3.57) | | |

<표2> What 그룹의 대학적응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 | | 사 전 검 사 | | | 사 후 검 사 | | |
|------|------------|-------------|------|------|-------------|--------|------|
| | | M(SD) | t | p | M(SD) | t | p |
| 학업적응 | 실험집단(n=20) | 50.20(5.41) | .23 | .565 | 54.35(5.88) | 3.67** | .001 |
| | 통제집단(n=20) | 49.75(6.81) | | | 46.90(6.94) | | |
| 사회적응 | 실험집단(n=20) | 24.95(2.74) | .19 | .818 | 27.00(3.57) | 1.78 | .083 |
| | 통제집단(n=20) | 24.75(3.91) | | | 24.80(4.23) | | |
| 정서적응 | 실험집단(n=20) | 31.95(4.44) | 1.24 | .852 | 33.50(5.20) | 3.17** | .003 |
| | 통제집단(n=20) | 29.70(6.81) | | | 27.89(5.83) | | |
| 대학 | 실험집단(n=20) | 22.55(2.39) | .26 | .223 | 24.15(3.01) | 2.45* | .019 |
| 소속감 | 통제집단(n=20) | 22.30(3.54) | | | 21.55(3.66) | | |

<표3> How 그룹의 대학적응에 대한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 | | 사 전 검 사 | | | 사 후 검 사 | | |
|--------|------------|-------------|------|------|-------------|------|------|
| | | M(SD) | t | p | M(SD) | t | p |
| 학업적응 | 실험집단(n=20) | 53.55(6.35) | -.03 | .979 | 52.10(8.50) | .20 | .846 |
| | 통제집단(n=20) | 53.60(5.34) | | | 51.55(9.32) | | |
| 사회적응 | 실험집단(n=20) | 26.40(3.56) | .20 | .846 | 27.90(4.28) | 1.45 | .166 |
| | 통제집단(n=20) | 26.20(2.88) | | | 26.00(4.03) | | |
| 정서적응 | 실험집단(n=20) | 33.30(5.83) | -.57 | .573 | 32.60(6.56) | -.15 | .880 |
| | 통제집단(n=20) | 34.20(4.01) | | | 32.95(7.96) | | |
| 대학 소속감 | 실험집단(n=20) | 23.35(3.98) | -.67 | .506 | 24.50(3.72) | 1.16 | .255 |
| | 통제집단(n=20) | 24.05(2.44) | | | 23.05(4.20) |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단계별 진로지도 프로그램인 “Three K Program”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 대학생을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각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진로지도 프로그램이다. 세 개의 프로그램 중, Knowing What 프로그램은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적응, 정서적응, 대학 소속감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진로성숙도에서도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Knowing What 프로그램이 직업탐색과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으며, 이는 나아가 대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Knowing Why 프로그램은 진로성숙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으나, 대학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Knowing How 프로그램은 대학적응과 진로성숙도에 있어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제시된 실질적인 취업정보와 취업기술은 현실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한 듯하며 대학생활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록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인 Three K 프로그램이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보인다. 이제까지와 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각 집단이 실시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효율적이 못하다고 보인다.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하고, 각 수준의 학생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를 제공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현 시점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진로지도는 대학의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진로상담이나 근래에 많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진로지도의 교양과목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에 Three K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그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강순화(1995). 4학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탐색 워크샷.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 31, 139-163.
- 강지윤, 김성지(2003).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24, 77-108
- 김기정, 이연희(1999).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연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1-16.
- 김남진(2003).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홍(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순(2004).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수(2003).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균(200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2006).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이유,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0.

- 백지숙, 도현심, 박성연(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서영석(2005). REBT를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산(2004). 대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진로교육연구**, 14, 67-77.
- 오진미(2003). 진로탐색훈련이 대학생의 진로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9, 1-21.
- 이준기(2005).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대학생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내외통제성, 진로의식성숙도, 진로탐색행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성, 홍혜경(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0(1), 143-166.
- 임은미·김현진(2002).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18, 425-443.
- 장기명(2001).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2, 71-99.
- 장현덕(1993). 진로 탐구 훈련이 대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Jones, L. K. (1977).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Unpublished scale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77-486.
- Jurgens, J. C. (2002). The undecided students: Effects of combining levels of treatment parameters on career 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client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8, 237-250.
- Leong, F. T. & Che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 Mowsesian, R., & Holly, S. (197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MI by sex,

ethnicity and tim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Osipow, S. H. (1987). *Manual for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cheier, M. L. & Carver, C. S. (1985). The Self-consciousness Scale: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687-699.